

발 간 등 록 번 호

79-6500450-000025-01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



제140회 특별전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중심으로

6·25

68 주년

4·3

70 주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140회 특별전
140th Special Exhibition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중심으로

2018. 11. 12월 ~ 2019. 2. 28목
수놓음관 특별전시실



주최
주관
협조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해군역사기록관리단, 해병대사령부, 국가기록원, 전쟁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해병대제9여단,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해병대3·4기전우회,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참전 용사들의 유족 등

6·25전쟁과 제주 그리고 제주인

1950년 6월 25일, 산천이 고이 잠든 새벽 4시 북한군 13만 5,000여 명은 전차 150대와 야포 600문 그리고 항공기와 경비정 등을 앞세우고 38도선 전역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강력한 적군의 공격 앞에 준비가 허술한 아군은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서울을 함락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7월 16일에는 중부권의 요충인 금강방어선이 돌파당하여 전선은 남으로 남으로 밀려 적군에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제주도민들은 풍전등화에 놓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가자고 부르짖었고, 그 우국의 함성이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덮어놓았고, 농군들은 농기구를 놓아두고, 지역의 청소년들은 청년방위대별로 군사훈련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이 한 몸 나라 위해 바치겠다는 거룩한 애국심으로 고향산천과 정든 가정을 두고 군입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제주도에 사령부를 둔 해병대로 3천여 명이 입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장하게도 16세부터 모병한 여자의용군 126명도 끼어 있었으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제주에 설치된 제5훈련소에 육군으로 1만여 명이 입대하였습니다. 이렇게 10월까지 1만 3,000여 명이 출전하였으며, 이 용사들은 군에 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개인보다 나라가 우선이라는 애국지성으로 혈서를 쓰면서 입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간 전쟁 상황은 아군이 10월 1일 38도선을 넘고 북진을 하여 희망에 들떴으나 10월 19일 중공군과 소련 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민들의 출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은 무려 3년 1개월이나 진행되었고, 제주용사들은 총탄이 난무하는 산악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용감하게 적을 무찔렀습니다. 제주도 출신이 주로 참전한 전장은 육군의 경우 지리산지구, 인제군의 설악산, 고성군의 884고지 및 월비산, 철원군의 백마고지, 김화군의 금성지구 전투에서 실로 눈부신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인천상륙, 수도탈환, 양구군의 도솔산, 924 및 1026고지, 장단군의 장단전투에서 그 투혼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무적해병의 신화를 창출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 1월 22일 대구 수성동에 있던 육군 제1훈련소가 대정 상모리로 이전해 왔습니다. 훈련소는 1956년 1월 1일 해체 시까지 50만 병사와 하사관 3만 8,745명, 자동차운전병 7천 355명을 양성하여 전선에 배치하였습니다. 이 용사들이 전쟁 주역으로 인해전술을 구사하는 공산군을 무찔렀습니다. 또한, 1951년 2월 1일부터 공군사관학교가 대정국민학교로 옮겨와 4월 23일 떠날 때까지 공군 간부를 양성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정 알뜨르비행장에는 공군전투비행단이 옮겨와서 미 공군 헬스 대령의 지도 아래 한국 공군 조종사에게 F-51무스탕 전투기 비행훈련을 잠시 동안이나마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제2조병창을 1950년 10월 16일 제주여자중학교와 제주주정공장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조병창은 1953년 11월 20일 인천시 고잔동으로 이설할 때까지 총탄, 수류탄, 박격포탄을 제조하여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육지부가 전쟁으로 황폐되다 보니 피난민이 대거 입도하였고, 1951년 말에는 무려 15만여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이들도 제주에서 도민과 함께 고난을 참으며 한때를 살다가 귀환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주문화는 한층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는 후방전략기지로써 국토의 최후 거점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쟁 수행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은 진충보국한 거룩한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받들고 후세에 길이길이 전승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의 얼을 되새기고자, 4·3 70주년과 참전 68주년을 맞이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했던 제주사람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이라는 기획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위해 흔쾌히 협조해주신 해군역사기록관리단, 해병대사령부, 국가기록원, 전쟁기념관, 제주교육박물관, 해병대3·4기전우회 등 관계 기관과 단체, 유족 그리고 증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정 세 호

목차

특별전을 기획하며	02
한국 전쟁 이전의 국군 창설 과정	06
민족의 비극, 6·25전쟁	07
6·25 전쟁 직후의 모습, 후방 전략기지인 제주도	08
육군 제1훈련소를 아시나요	09
6·25와 제주 4·3 그리고 당시 제주사회	10
잊어서는 안 될 전쟁, 그리고 평화	11
조국을 구하라!	12
돌격 앞으로, 고지를 사수하라!	13



강용택
공생

인천
상륙작전



참전용사들

고태문 대위	14
강승우 중위	15
김문성 중위	16
한규택 하사	17
고남화 대령	18
오동진 대령	19
김두원 대위	20
부창옥 학도병	21
강상진 해병	22
열녀 양순자	23
여자 해병대	24

58 英靈歌	26
진혼가	27
삼다도 소식	28

중앙청
해병대

제주도 피난과 문화예술 활동	29
피난 속에서 거장의 꿈을 키운 화가들	30
한국보육원, 잠시 제주도로 옮겨오다	31
연필 대신에 총을 잡은 학도병과 학도돌격대	32
조국을 택한 재일학도의용군	33
전몰 학도의용병에게	34
8월의 사나이	35
무공훈장을 받은 제주 출신 참전 용사들	39
태극기를 몸에 품다. 살아서 돌아와다오	40
태극기를 휘두르고 전장으로 나간 학도병	42
장한 어머니 이재숙 여사	43
신화를 남긴 해병대 3·4기 전우회	44
해병훈탑과 명예해병 1호 장시영	45
전우애로 뭉친 50동지회	46
공생(共生)	47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현황	48
6·25참전기념탑	50



전장에서 성탄절과 휴식을 즐기는 용사들	52
나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	53
잊지 못할 전우들과 함께	54
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전우들	55
동기들의 무사안녕을 빌며	56
제주 해병의 상징, 김치현 장군의 유품들	57
유서를 안고 전장에 나선 양재용 중위의 유품들	58
무공훈증 등 각종 증명서	59
표창장, 수료증, 전역증서, 훈장증	61
명찰, 계급장, 마크, 군번줄	63
전우들과 인연을 맺은 보급품	65
참전 용사의 담요, 수건, 옷, 양말, 장갑	66
군사우편이 전하는 소식	67



안동지구
1951.01

한국 전쟁 이전의 국군 창설 과정

1945. 11. 11	해방병단 창설 (단장 손원일)
1945. 11. 13	미군정청에 국방사령부 설치 (준장 쉬크)
1946. 01. 15	조선국방경비대 창설 (소령 마샬, 참령 원용덕)
1946. 11. 16	조선경비대 보병 제9연대, 대정면 상모리에 창설
1948. 08. 15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 설치 (초대 이범석 장관)
1948. 09. 05	조선경비대를 육군으로 승격 (준장 이용준)
1948. 09. 05	조선해안경비대를 해군으로 승격 (준장 손원일)
1949. 04. 15	해군에 해병대 창설 (중령 신현준)
1949. 10. 01	육군에서 독립 공군본부 창설 (대령 김정렬)
1949. 12. 28	해병대 본부 진해에서 제주도로 이동 (1950. 9. 1 다시 육지로 이동)

한국 전쟁 당시의 군사력 비교 현황

구 분	한국군	북한군
육 군	94,974명	182,680명
해 군	7,715명	700명
공 군	1,897명	2,000명
해병대	1,166명	9,000명
곡사포	91문	728문
박격포	960문	2,318문
항공기	22대	211대



제주도 주둔시 해병대 간부들
앞줄 좌 1 이홍균, 2 김성은 중령, 3 신현준 대령,
4 이동호 소위, 뒷줄 좌 2 두홍석, 김덕준 준위
(사진_해군역사기록관리단)



미 제5해병대 낙동강에 진군
(사진_국가기록원)



백마고지전투에서 중공군과 교전 중 부상한
한국군이 민가에 급조된 전방 병무대에서 치료
(사진_국가기록원)

북한 남침 (1950년 6월 ~ 9월)

-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38선 이남으로 기습공격
-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 (북한군 철수, 대한민국 원조 권고)
- 1950년 6월 28일 서울 실패
- 1950년 7월 31일 북한군 진주 점령
- 1950년 8월 1일 국군 유엔군 낙동강 방어선 구축

국군·유엔군 반격 (1950년 9월 ~ 10월)

-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인천상륙작전 성공
- 1950년 9월 28일 서울 탈환
-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여 북진 (이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

중공군 개입과 국군·유엔군 재반격 (1950년 10월 ~ 1951년 7월)

-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 제13병단 압록강 넘음
- 1951년 12월 1일 중공군 공세로 유엔군 전면 철수
- 1951년 2월 1일 유엔총회 중공군 철수 요구
- 1951년 1월 4일 아군 서울에서 철수
- 1951년 3월 15일 국군 제1사단 서울 재탈환
- 1951년 3월 27일 유엔군 38선 재돌파

평화협정 체결 (1951년 7월 ~ 1953년 7월)

- 1951년 7월 개성에서 휴전회담 시작
-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 조인

국내 상황

- 1945. 8. 15 광복
- 1945. 8. 22 소련군 평양 입성
- 1945. 9. 08 미군 인천 상륙
- 1945. 9. 09 미소 38선 분할 점령 발표
- 1948. 4. 03 제주4·3 발생
- 1948. 5. 10 남한 총선거
-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8. 9. 0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포
- 1949. 3. 07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김일성 회담
- 1949. 5. 28 주한미군 철수
- 1950. 1. 12 에치슨 라인 선언
(극동방어선에서 한국, 대만 제외)

민족의 비극, 6·25전쟁



〈한국전쟁의 주요 전개 과정〉

6·25 전쟁 직후의 모습, 후방 전략기지인 제주도

1950년

- 6. 27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전황 설명 (해병대사령부 김성은 중령)
- 6. 28 관덕정에서 남침 규탄 결기대회 개최
- 7. 08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해군 대령 신현준)
- 7. 15 해병 고길훈 부대 군산으로 출동
- 7. 16 육군 제5훈련소 설치 (건입동 주정공장)
- 7. 22 해병 김성은 부대 여수로 출동
- 7. 23 제주 거주 서북청년단 보병 5사단에 합류를 위해 출동
- 7. 27 공군기지대 창설
- 7. 30 관덕정에서 제주학생 총 결기대회 (학도호국단 주관)
- 8. 05 해병대 3기생 입대
- 8. 30 해병대 4기생 입대
- 8. 31 해병여자의용군 입대(126명)
- 9. 01 해병, 육군 제주항에서 출발

9월~10월 말 육군 신병 10,000여 명 출정 (재일학도의용군 642명 중 제주 출신 25명 입대)

- 10. 16 국방부 제2조병창 설치 (제주여자중학교, 제주주정공장)
- 10. 31 제3해군병원 개원 (제주농업중학교 교정)
- 12. 27 미 공군 중령 딘 헤스(Dean Hess) 전쟁고아 907명을 서울 종로초등학교에서 제주농업중학교로 긴급 후송(한국보육원 개원)

195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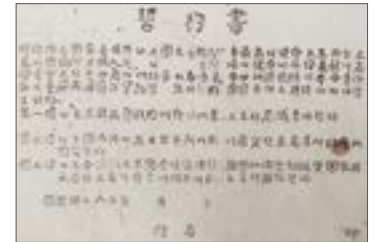
- 1. 22 육군 제1훈련소(1950. 7. 11 창설)가 대구에서 제주로 이동 (육군 제5훈련소를 제1훈련소로 합병)
- 2. 1 공군사관학교 제주도로 이동(1951. 4. 23 육지부로 이동)

1952년

- 7. 17 제20포로수용소 개소 (당시 2,000여명)

1953년

- 1. 1 육군 제1훈련소를 강병대로 부대 명칭 변경(1956. 1. 1 폐쇄)
- 7. 27 휴전



방위대 편입 서약서
(25.0X10.5cm) / 김두원
(1950 한국전쟁 이전)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에서 개최된 미군 진주 2주년 기념식 참석(1952) (사진_국가기록원)



육군 제1훈련소를 아시나요

1951년에 지어진 육군 제1훈련소 정문

제1훈련소 (1950년 7월 11일 경북 대구에서 창설)는 1951년 1월 22일 제주도 모슬포로 이전하였을 때 사용된 지휘소이며, 강병(强兵)을 육성하는 터전이라는 뜻으로 ‘강병대(强兵臺)’ 혹은 ‘모슬포 훈련소’라고도 한다. 1956년 1월 1일 해체될 때까지 전방에 배치할 신병 교육이 주된 임무였다. 특히 6·25전쟁 중에는 많은 신병을 배출하여 서울 재탈환 등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등록문화재 제409호(2008년 10월 1일 지정).

제1훈련소가

유 호 작사, 박시춘 작곡

제주도 넓은 벌에 바람소리 군세이니
한나라 젊은이의 구령소리 우렁차다
핏줄은 엉키어서 즐거웁게 뭉쳤으니
조국을 지킬 사람 우리 두고 또 있으랴
한라산 높은 봉에 떠오르는 아침 해는
민족의 앞을 서는 우리들의 기상이다
이 몸은 어느 곳에 스러진단 할지라도
그 넓은 피어나서 온 누리를 비치렀다
청춘을 조국 앞에 아낌없이 바친 우리
빛나는 사나이 길 따뜻하게 가랴구나
한사코 싸워 이겨 인류의 적 무찔러서
평화의 무쇠종을 너와 나와 울려보자

강병대 교회

1952년 1월 10일 훈련소장으로 취임한 장도영 소장이 장병들의 정신적 양식과 종교적 생활을 통해 강인한 정신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 1952년 5월 1일 대정읍 상모리 3846번지에서 착공, 같은 해 9월 14일 교회를 준공했다.

1953년 1월 21일 육군 제1훈련소가 ‘강병대(强兵臺)’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교회 이름도 지금의 강병대 교회로 정착됐다. 당시 육군 공병대가 직접 제주의 현무암으로 지었다.

등록문화재 제38호(2002년 5월 31일 지정).



6·25와 제주 4·3 그리고 당시 제주사회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4·3으로 제주도민들은 연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해방 직후에 남과 북이 완전한 통일 시대를 희망하던 차에, 강대국에 의해 남과 북이 분할되면서 이념적 대립으로, 제주 사회는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다.

당시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의 무장대 그리고 서북청년단과 미군정 중심의 우익 세력 간의 대립으로 무고한 제주 도민들이 상당수 희생되게 된다. 또한 한국 전쟁 중에도 예비검속으로 형무소 재소자들이 사상적 위험성을 내세워 집단 학살되기도 한다.

자칫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한 상태였지만, 제주도민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오로지 구국의 신념으로 자원입대하였으며, 중학생 신분인 학도병을 비롯하여 무려 30,000여 명이 전쟁에 참전하여, 험격한 공을 세운다. 안타깝게도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되지만, 제주 4·3은 1954년 9월 21일에야 막을 내리게 된다.



첫알오름 학살터(상모리)

1950년 8월 20일 제주도민 200여 명이 예비검속으로 집단 학살당하였다.



너븐숭이 4·3유적지(북촌리)

4·3 당시에 북촌리 주민 수백명이 희생되었으며, 이를 기억하기 위해 2009년 3월 31일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이 개관되었다.



영모원(하귀리)

하귀리 주민들이 항일운동가, 4·3희생자, 4·3 및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희생된 호국영령들을 한 곳에 모셔 추모하고자, 2003년 5월 27일 제막식을 가졌다.



제주 4·3평화공원(봉개동)

2008년 3월 28일 4·3평화기념관이 개관되었으며, 4·3평화공원에는 희생자들의 위패와 각명비가 모셔져 있다

역사적으로 제주는 고려시대의 몽골 지배, 조선시대의 도외출륙금지령, 일제강점기 그리고 4·3과 6·25 등 고난과 시련의 시대를 거쳐 왔다. 이제 평화의 시대를 맞았지만,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안겨준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은 2018년에 들어서 한반도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화해 협력 시대를 맞고 있다.

향후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참전용사 유해 발굴, 남북철도 연결 등으로 남북 간의 우호적 관계가 진전될 시점에 이르게 되면, 2006년 7월 1일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의 상징은 물론 자연과 문화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향하는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서길 희망해본다.

**잊어서는 안 될
전쟁,
그리고 평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2006. 7. 1
(사진_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

조국을 구하라!!!



부산 부두에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해병대_ 1950년 8월 (사진_해군역사기록관리단)



한국전쟁 당시의 아군 함정들_
왼쪽 : LST-806 용비, 오른쪽 : YMS-505 김해 (사진_해군역사기록관리단)



인천에 상륙 중인 해병대_1950년 9월 15일 (사진_해군역사기록관리단)



북으로 진격하는 해병대
(사진_해군역사기록관리단)



중앙청으로 진격하는 해병대_1950. 9. 28
(사진_해군역사기록관리단)

돌격 앞으로, 고지를 사수하라!

제주 출신 용사들의 주요 참전 격전지

- ◇ 장사(경북 장사)상륙작전 (1950. 9. 14 ~ 9. 28)
- ◇ 인천상륙작전 (1950. 9. 15 ~ 9. 16)
- ◇ 서울탈환 전투 (1950. 9. 17 ~ 10. 5)
- ◇ 지리산 지구 게릴라 전투 (1950. 10. 1 ~ 1951. 4. 6)
- ◇ 설악산(인제, 고성, 양양) 전투 (1951. 5. 7 ~ 5. 11)
- ◇ 도솔산 지구(강원도 양구) 전투 (1951. 6. 4 ~ 6. 20)
- ◇ 강원도 고성(884고지, 351고지) 전투 (1951. 8. 18 ~ 8. 27)
- ◇ 924고지 및 1026고지(강원도 양구) 전투 (1951. 8. 31 ~ 9. 3)
- ◇ 백마고지(강원도 철원) 전투 (1952. 10. 14)
- ◇ 장단(경기도 사천강) 지구 전투 (1952. 10. 2 ~ 11. 1)
- ◇ 금성남방삼현(강원도 김화) 지구 (1953. 7. 13 ~ 7. 26)



“우리는 後退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方向으로 攻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戰士들이었지 戰爭狂은 아니다.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해냈고 그건
記憶할만한 價値가 있는 일이다.”



남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철의 삼각지 유력 (조선일보 2018. 8. 21)



한국전쟁 당시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제주 출신 故 황재중 선장 충무무공훈장 추서
(제민일보 2018. 6. 26)



- 1929년 1월 구좌읍 한동리에서 출생
- 1950년 3월 방위훈련학교 제4기 간부 후보생으로 입교
- 1950년 10월 육군 소위로 임관
- 1951년 9월 육군 중위로 승진
- 1952년 11월 12일 강원도 고성군 351고지를 방어하던 중, 중대원을 안전하게 철수시킨 본인은 적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함
- 1952년 1월 화랑무공훈장 수훈
- 1952년 10월 충무무공훈장 수훈
- 1952년 11월 1계급 특진 및 을지무공훈장 수훈
- 1995년 4월 호국영웅 100인에 선정 (전쟁기념사업회)
- 2012년 12월 신산공원 6·25참전기념탑 4인 호국영웅 흉상 건립
- 2015년 8월 고향 한동리에 고태문로 지정

고태문 대위는 1951년 8월 강원 양구 편지불전투에 참전, 북한군 2개 연대가 장악한 고지를 육탄공격으로 탈환했다. 이듬해 11월 12일 고성전투 중 백병전으로 고지를 사수하다 23살에 전사했다. 큰 피해를 입은 적은 후퇴했고, 다음날 국군은 빼앗긴 고지를 재탈환했다



고태문 대위 흉상_한동초등학교



고태문로_구좌읍 한동리



백마고지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에 위치함.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은
1만4천 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국군 9사단은
이 전투에서의 승리로
백마부대로 불리게 되었다.

- 1930년 11월 성산읍 시흥리에서 출생
- 1950년 8월 사병으로 입대한 후, 1951년 6월에 육군 보병학교에 입교하여 정규 훈련을 마치고 12월 육군 소위에 임관 (강원도 철원 육군 보병 제9사단 제30연대 소속 소대장으로 배속)
- 1952년 10월 12일 백마고지(395고지)에서 안영권 일병, 오규병 일병과 함께 온몸에 수류탄을 무장하고 적의 진지로 돌진하여 장렬히 산화함
- 1953년 5월 은성무공훈장(미국) 추서
- 1953년 7월 을지무공훈장 및 1계급 특진 추서
- 1991년 7월 탐라자유회관 백마고지 육탄 3용사상 건립
- 1995년 4월 호국영웅 100인에 선정(전쟁기념사업회)
- 2012년 12월 신산공원 6·25참전탑 4인 호국영웅 흉상 건립
- 2015년 8월 고향 시흥리에 강승우로 지정



백마고지 육탄3용사상 (탐라자유회관)



강승우로(성산읍 시흥리 해안도로)



강승우 소위 교육 교재, 경북 부항초등학교, 1979년(좌) /제주 시흥초등학교, 1985년



- 1930년 7월 서귀포시 신호동에서 출생
- 1950년 9월 해병대 4기로 입대
- 1950년 11월 해병학교 사관후보생 제3기로 입교
- 1951년 3월 해병학교 수료와 동시 소위 임관
- 1951년 6월 8일 강원도 양구군 도솔산 1181고지 전투에서 대원을 이끌고 용전분투하다가 장렬하게 전사. 1계급 특진 추서
- 1995년 4월 호국영웅 100인에 선정 (전쟁기념사업회)
- 2012년 12월 충무무공훈장 수훈
- 2012년 12월 신산공원 6·25참전기념탑 4인 호국영웅 흉상 건립

도솔산전투.

1951년 6월 4일부터 20일까지 북한군이 점령한 강원도 양구군 도솔산을 탈환하기 위해 국군 해병대가 투입돼 격전을 벌인 끝에 승전한 산악지구 전투로

미 해병대도 성공하지 못했던 곳임.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8월 19일

해병대 제1연대에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여한 뒤,

8월 25일 도솔산 전승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무적 해병’ 휘호를 하사했다.

이후 도솔산전투를 기리며

‘도솔산가’라는 군가가 제창되었으며,

1998년부터 도솔산전적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김문성 중위 흉상_제주고등학교



제주농업학교 시절_왼쪽부터 김대수, 김문성, 송봉규, 최병은, 고남화



김문성 묘비_서귀포시 충혼묘지



- 1930년 4월 애월읍 상귀리에서 출생
- 1950년 8월 해병대 3기로 입대
- 1951년 11월 20일 평안남도 자개리 전투에서 적탄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중대의 철수를 위해 적 기관총 2대를 파괴하고 세번째 기관총을 격파하는 순간 적탄을 가슴에 맞고 장렬히 산화함
- 1995년 4월 1계급 특진 삼등병조(하사)로 추서
- 1995년 4월 호국영웅 100인에 선정 (전쟁기념사업회)
- 2006년 6월 충무무공훈장 수훈
- 2012년 12월 신산공원 6·25참전기념탑 4인 호국영웅 흉상 건립
- 2015년 8월 고향 상귀리에 한규택로 지정

한규택 하사는 적탄을 왼쪽 어깨에 맞았지만
'나에게는 아직 오른팔이 있다' 면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철수를 하는 전우들을 완전하게 철수를 시키기 위해 육탄으로
적의 기관총에 맞서 싸우다 산화를 한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다.



한규택 하사 흉상_하귀일초등학교



한규택로_애월읍 상귀리

유언서를 쓰고
전장을 지휘한

.....

고남화
대령



제주농업중학교 시절 학생중대_
1949년, 왼쪽부터 장응규 제1소대장,
송봉규 중대장, 고남화 제3소대장

고남화(1931년생, 제주시 출생)은 제주농업중학교(현 제주고등학교) 4학년 재학 시 제1기 학도호국대 군사훈련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듬해 3월에는 청년방위훈련학교를 마치면서 신성모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역 소위로 임관하는 사령장을 받음. 이후 1950년 6월 제2대 제주농업중학교 학도호국대장을 맡아 학생들의 훈련과 지도업무를 수행함.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동기생들이 대거 해병대 4기로 입대하지만, 고남화는 9월 1일 육군 제5훈련소 신병 소대장 보직을 받고 9월 25일까지 신병교육을 수료함. 9월 26일 제주항에서 수송선을 타고 창설되는 제13연대에 배속을 받음. 이후 호남권 공비 토벌, 강원도 고성군의 564고지, 591고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1953년 육군보병학교 초등군사반 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하면서 육군 대위로 승진하여 육군보병학교 교관으로 근무하게 됨. 이후 1954년 11월 미육군보병학교를 수료하고 육군사관학교 전술교관으로 임명됨. 이후 1976년 8월 국방대학원을 끝으로 전역함.

1951년 은성화랑무공훈장, 1967년 화랑무공훈장 및 월남금성훈장, 1972년 보국훈장 삼일장 등을 받았으며, 6·25전몰 제농학도 추념비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994년 6월 25일 제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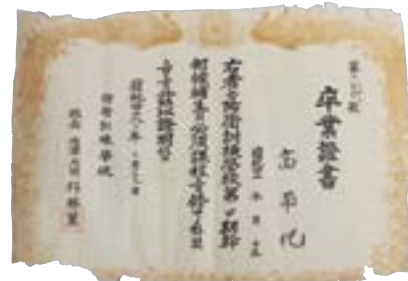
한편 그가 육군보병학교에 재직하던 1953년 7월 6일 여자간부후보생 제1기로 입교한 박진학 후보생을 알게 되어, 1955년 11월 25일 혼인함. 박진학(1931년생, 경북 경산 출생)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50년 9월 6일 제1기 여자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하고, 1953년 8월에 육군 소위를 거쳐 1974년 5월 대령으로 승진하여 육군본부 제8대 여군단장을 역임하고 1976년 5월 전역함. 고남화, 박진학 대령은 대한민국 국군 사상 처음으로 부부대령으로 기록을 남김.



표창장
41.0x31.0cm / 1950
(소장_민속자연사박물관)



학도호국대 군사훈련과정 수료증
37.0x26.5cm / 1949
(소장_제주교육박물관)



방위훈련학교 졸업증서
40.0x27.5cm / 1950
(소장_제주교육박물관)



오동진은 1935년 1월 제주시 삼도동에서 태어났으며, 당시 제주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52년 2월 20일 부모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원입대함.

1952년 11월 강원도 인제군 서화리 전투에 참전 중에 부상 당하였으며, 이후 전투에 복귀하여 휴전될 때까지 전장을 지킴.

이후 1965년에 맹호부대 제1진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1981년에 대령으로 예편함.

당시 오동진은 글을 안다는 이유로 사병이 아닌 하사관 교육대에서 3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이등중사(병장)' 계급장을 단다.

이후 곧바로 장교 후보생 모집 공고가 나왔다.

하지만 당시 18살이었던 오씨는 '20세 이상'이라는 제한 기준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었다.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나이를 속이고 지원서를 제출해 시험에 합격해서, 1952년 10월 11일 창군 이래 유일한 18살 소위가 되었다.



1952년의 모습



JIBS 2018. 6. 25



제주신문 2018. 6. 25



한라일보 2018. 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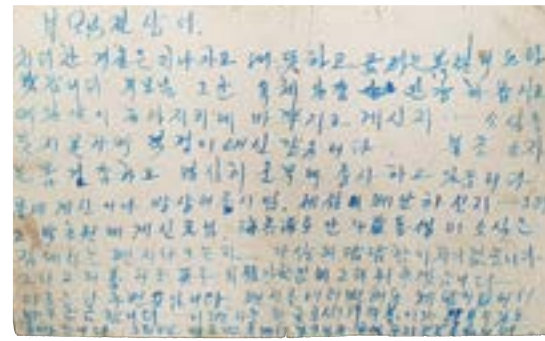
죽음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한
.....

김두원
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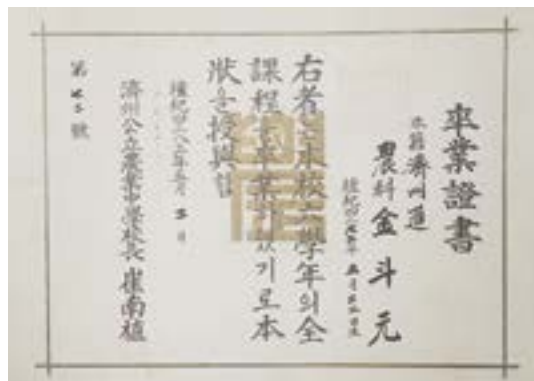
김두원 대위는 1929년 5월 22일 서귀포시 상호동에서 태어났으며, 1950년 5월 2일 제주농업중학교를 졸업함.

195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충남 온양읍 육군방위훈련학교 제4기 간부 후보생 과정을 수료하고 예비역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육군 제5훈련소에 응소함(동생 김두익은 해병4기로 입대함).

1950년 10월 22일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1951년 9월 1일 중위로 승진한 후, 1952년 5월 22일 강원도 고성군 건봉산 전투에서 적 진지 침투 작전으로 장렬하게 전사함.



부모님께 보낸 군사우편 (8.2x14.2cm) 1951~1952 / 뒷면



졸업증서
(39.6x27.1cm)
1950. 5. 2



양잠학 노트
(15.0x19.0cm)
1950



지도일기수첩 (6.2x12.0cm)
1951, 1952



전사통지서 (12.5x18.0cm)
1953. 5. 24



전사통지서와
함께 보내온 가방
(22x26.0cm)
1950



부창욱 해병은 1933년 1월 제주시 건입동에서 태어났으며, 1949년 7월 오현중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5월 제주도초대초등교사 양성소를 수료함.

1950년 8월 30일 당시 17세의 나이로 해병대 4기로 입대하여, 1주일 후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38북진작전, 가리산작전, 영덕영월작전, 도솔산작전, 월산령작전, 장단사천강작전 등에 참전하여 진중일기를 남김.

1951년 12월 19일 월산령 751고지 전투에서 부상 당하여 1952년 11월 1일 제5해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954년 5월 10일 명예 제대함.

1952년 12월에 금성화랑무공훈장, 은성충무무공훈장, 금성충무무공훈장을 각각 수훈.

2000년 11월 어느 병사의 전쟁수첩 <월산령에 진 별들>을 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6년 6월 5일 보훈문예물 현상공모에서 <어느 병사의 인천상륙작전부터 월산령 전투까지>로 참전수기 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함.

이후 「한국전쟁수첩 - 어느 학도병의 참전일기」(2012), 「수재록」(2017)을 발행하였으며, 고양부삼성사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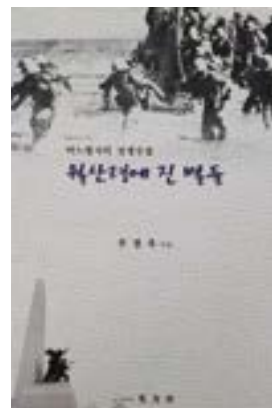
1952년 7월 8일 해병대 제2병원중대 석별기념
(서울 영등포)_둘째 줄 맨 오른쪽 부창욱, 둘째줄
2번째 장시영 군의관



초대초등교사 양성소 수료식을 앞두고
(1950)



진중일기 (9.5x14.7cm)



월산령에 진 별들



한국전쟁수첩
- 어느 학도병의 참전일기

미해병 제1사단
부사관학교
교관과정을 수료한
.....

강상진
해병

강상진 용사는 1932년 4월 1일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해방 후 귀국하여 1950년 오현중 4학년 때에 해병 4기에 입대함.

그는 서울탈환작전, 경기 장단전투 등에 참전하였으며,
1953년 7월 23일 중공군과 치열한 교전 끝에 왼쪽 눈이 실명하게 됨.
이후 진해 해군병원에서 투병하다가 1954년 7월 31일 명예 전역함.

1953년 3월 22일 강상진 해병은 미해병 제1사단 부사관학교에 입교하여 6월 20일 수료함(당시 후보생 250명은 미해병대이며, 한국인으로는 강상진이 유일함).



방한복을 입은 강상진(1953)



동료들과 함께(아래 강상진, 1953)



미해병대 제1사단 부사관학교 교관과정 수료
확인서 (사본, 교육기간 1953. 3. 25~6. 20)



미해병대 1사단
부사관학교 교재
(21.0x34.0cm)



제주일보 2005. 6. 25

남편의
전사통지서를
가슴에 품은

.....

열녀
양순자

고(故) 해병 이등병조 진순종(秦淳宗)은 한림읍 명월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0년 당시 제주농업학교 4학년 때 학도병으로 해병대 4기에 자원입대하여 통영작전, 인천상륙작전, 수도탈환작전에 참전하였으며, 1951년 6월 11일 강원도 도솔산 전투에서 약관 21세로 순직함.

당시 도솔산 산악 탈환은 제9중대장 강복구 중위(현 성남시 거주, 전 해병대 전우회 총재)가 지휘하였으며, 제2소대장은 김문성(서귀포시 출신) 소위, 박격포반 분대장은 진순종이었음.

그의 부인 열녀 양순자(梁順子)는 같은 마을 출신으로 18세에 결혼하여 남편의 전사소식을 듣고 애끓는 슬픔을 끝내 참지 못하고 1952년 12월 3일 부군의 전사통지서를 가슴에 품은 채 양젖물을 마시고 순절함.

진순종 용사의 슬하가 없어서 조카인 진성택(제주도 환경건설국장 역임) 씨가 양자로 들어가 계대를 이어가고 있음.



열녀 양순자 추모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입구 삼거리)



진순종 용사의 묘비
(국립서울현충원)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군인들

.....

제주 출신
여자해병대

6·25 전쟁 발발 직후, 16세부터 20대 미혼까지 의사, 초·중등 교사, 중학생 등으로 구성된 여자의용군 126명이 지원함.

1950년 8월 31일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입대신고를 마치고(육군 여자의용군은 9월 6일 입대), 9월 1일 제주항을 떠나 진해 경화초등학교에 도착해서 19일간 신병기초훈련을 받음. 이어서 해군신병훈련소에서 21일간 교육을 받고 10월 10일에 수료함.

이들 중 72명은 바로 전선에 투입되었지만 나머지는 나이가 어리고 전황이 호전되면서 귀향 조치됨.

불행하게도 제대한 여자해병대원들의 군번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들의 참전기록은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 다행히 이들 중 19명은 2000년 9월 1일 군번을 되찾아 참전용사의 명예를 회복하게 됨.



참전 여자해병대원_

왼쪽부터 고순덕, 강인숙, 김예순, 박종유, 강소삼, 김금력, 김창민



중앙일보 2000. 8. 30



최초 해병 여군 복식_

47x53x67cm

(소장_해병대사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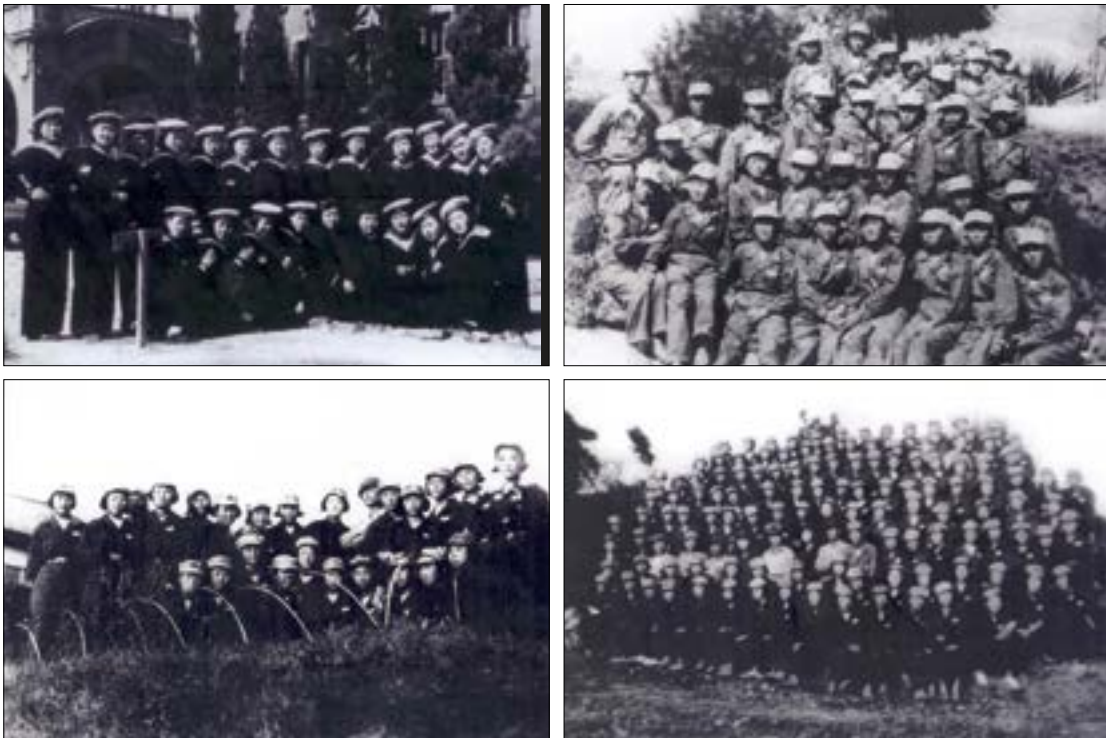


한라일보 2014. 6. 23

여자해병대들의 결연한 모습



교육 훈련 중의 모습 (1950)



교육 훈련 수료 기념 (1950. 10. 10 / 진해에서)

58英靈歌

작사·작곡 미상

세계의 평화를 위해 민족의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친 우리 해병대 58영령이여
인류의 원수 처 부수고서 고요히 잠드신
말없는 용사 대한의 꽃이여

불멸의 그 공적은 제주 남아가 같길이여
청사에 영원히 빛나리라 장하다 ---
그대의 가신 그 - 길 우리도 따르리
개선의 종을 울리어 주던 58영령이여

노래의 배경

제주 출신 해병3·4기생들이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작전 당시 전사자 58명의 희생자를 위한 추모식 때 불렀던 노래였으며, 당시 추모식 장소인 관덕정에는 유가족, 각급 기관장, 학생 등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실제 경인지구전투에서는 해병대원 97명이 전사하고, 417명이 부상당했다.



인천상륙작전 (사진_국가기록원)



관덕정에 모인 사람들 (사진_강상진)

진혼가

압록강 두만강이 흐를 대로 흘러서
강산에 뿌린 피를 깨끗이 씻어
백두산아 한라산아 영기를 차려
대지의 잠든 넋을 위로하여라
장하다 그대 혼백 천엽만화 피어서
금수강산 위에 길이 빛나라
백두산아 한라산아 영기를 위로하여라
대지의 잠든 넋을 위로하여라

노래의
배경

중학생 신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학도병들의 유해가 제주항에 도착한 후, 제주시 이도동 불교 포교당으로 옮겨 봉안하게 된다. 이때 학생들의 진혼가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즉석에서 당시 제주농업중학교(6년제) 4학년 김찬흠 학생이 가사를 쓰고, 동급생인 홍경표 학생이 가지고 가서 2일 만에 작곡을 하여 학교에 전파되었다.



전장에서 만난 전우들 (사진 오문찬)



제주일보 1994. 6. 26

삼다도 소식

삼다도라 제주에는 돌맹이도 많은데
밭뿌리에도 걷어채는 사랑은 없다드니
달빛이 새어드는 연자방앗간
밤새워 들려오는 콧노래가 구성진다
음 - - - 음 - - 콧노래 구성진다

삼다도라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씻은 살결 옥같이 귀엽구나
미역을 따오리카 소리를 딸까
비바리 하소연이 물결 속에 꺼져가네
음 - - 음 - - 물결에 꺼져가네

노 래 의 배 경

육군 제1훈련소가 1951년 1월 22일 대구에서 제주도 모슬포로 이동해 오면서 제1훈련소 군예대도 창설되었다. 당시 군예대는 시인 유호, 작곡가 박시춘, 가수 남인춘, 신카나리아, 연예인 구봉서 등 유명한 예술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때 박시춘은 모슬포에서 제주 노래 하나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즉석에서 유호가 가사를 쓰고 박시춘이 곡을 붙였으며, 그 후 황금심이 노래를 불렀다.

삼다도 소식은 모슬포 바다를 배경으로 숨비소리를 들으며 만들어졌으며, 2014년 3월 21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3리 석산이물 공원(지금은 사라져버린 군예대의 목조 2층 건물이 있었던 터)에 노래비를 세웠다.



삼다도 소식 노래비
대정읍 하모3리

제주도 피난과 문화예술 활동

한국전쟁 직후 전국에서 피난민이 제주도에 밀려온다. 불과 전쟁 20일만인 7월 16일부터 제주, 한림, 성산, 화순항을 통해 1만여 명이 들어왔다. 1951년 1·4후퇴 뒤에는 북한 주민들도 대거 늘어나면서, 피난민 수는 1951년 1월 3일 까지 1만 6,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1월 16일에는 8만 7,000여명, 5월 20일에는 무려 14만 8,000여 명에 이르렀다. 피난민 수가 제주도 인구의 절반을 넘기에 이른다. 4·3의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밀어닥친 피난민의 급격한 증가로 제주 사회의 주택난, 식량난 문제가 심각해졌다. 제주에 피난 온 사람들 중에는 당대에 뛰어난 문화 예술인도 많았다. ‘백치 아다다’로 유명한 계용묵(1904년생, 평안북도 출생)은 1951년 초부터 1954년 6월까지 머물면서, 당시 제주극장 인근에서 피난 생활을 시작했으며, 부인은

관덕정 광장에서 양담배 노점상을 했다. 칠성로에 있던 동백다방은 그의 창작 장소였다. 그는 1952년 종합 교양지 ‘신문화’, 1953년 동인지 ‘흑산호’ 창간을 이끌었고, ‘별무리’ 모임 등 여러 문학청년들을 지도했다. 이때 제주 출신 양중해, 고영일, 정하은 등이 그에게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한국문인협회와 SBS문화재단은 1998년 9월 26일 그의 문학정신과 제주문학에 끼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주시 칠성로에 ‘계용묵 선생의 문학 산실’ 표지석을 세웠다. 미국인 찰스 길버트(Charles E. Gilbert) 소령은 1952년 유엔 민간협력단체 부사령관으로 부임하여, 당시 제주중, 오현중 관악대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고봉식, 김승택 등 제주 지역 음악인에게 관악과 지휘법을 전수했다.

〈자료, 한라일보(2014. 9. 16), 제주일보(2015. 1. 19)〉



계용묵 선생의 문학 산실 표지석



1953년 길버트 소령 송별 음악회
오른쪽 세번째 길버트,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충훈탑 진혼가
시 현곡 양중해, 서 해정 박태준

피난 속에서 거장의 꿈을 키운 화가들

천재화가 이중섭(1916년생, 평안남도 출신)은 1951년 1월에 들어와 서귀포에서 12월까지 머물면서 서귀포 바닷가의 계와 해변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그리면서 창작활동을 이어갔다.

장리석(1916년생, 평양 출신)은 1.4후퇴로 원산에서 부산을 거쳐 제주도로 피난하면서 가족과 이별하였다. 1954년 제주를 떠날 때까지 제주의 바다와 해녀를 주제로 한 작품

들을 남겼다. 그는 해군 정훈부 선무공작대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반공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1951년 도내에서 첫 반공 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물방울 화가로 유명한 김창열(1929년생, 평안남도 출생)은 1952년 경찰학교 졸업 후 제주도에 파견되어 1년 6개월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2016년에 그의 작품 220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하였다.



이중섭 거주지_서귀포시 서귀동



이중섭미술관 외부 전경



제주도립미술관 장리석 전시실



제주도립김창열기념관 전시실

한국보육원, 잠시 제주도로 옮겨오다

한국전쟁 당시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기붕 서울시장은 종로초등학교에 수용 중인 서울시립 아동양육원 소속 고아 1천여 명을 제주도로 후송하기로 결정함.

이 과정에서 미군 목사 러셀 브레이즈델(Russell Blaisdell)과 최승만의 주선으로 UN군 소속 미 제5공군 제61수송대가 참여함.

당시 딘 헤스(Dean E. Hess) 공군 대령이 총지휘를 맡았으며, 그 해 12월 27일 고아를 실은 수송기 16대가 제주도에 도착함.

1950년 12월부터 1955년 11월까지 제주시 전농로

일대의 제주농업중학교를 비롯하여 학교 교실과 운동장 시설을 한국보육원에 무상으로 임대해 줌.

전쟁 중인 1953년에 한국보육원 브라스 밴드가 결성되어, 서울, 부산, 대구, 모슬포, 제주시 등에서 유엔 장병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공연을 펼친 바 있음.

이후 1995년 11월 한국보육원은 서울로 이전했다가 1970년 현 위치인 경기도 양주시로 이전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던 황온순(1903~2004)은 1982년에 창필재단을 설립, 한국보육원을 이에 귀속시켜 원불교 교단에 희사함.

참조: 제주고 백년사(2011)



헤스 대령 일행 한국보육원 어린이에게 선물 전달 (사진_국가기록원)



클라리넷 연주를 선보이는 소녀 (1952. 7. 3)_
지난 2011년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는 이 소녀(유인자, 서울 거주)를 제주도로 초청한 바 있다. (사진_제주특별자치도)

헤스 대령은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기간 중 한국 공군 제187호 F-51 전투기에 '신념(信念)의 조인(鳥人)'이라는 글귀를 쓰고 출격한 공로로, 대한민국 무공훈장과 미 공군 공로훈장을 받음



항공우주박물관 내에 전시되어 있는 전투기에 '신념(信念)의 조인(鳥人)' 글자가 뚜렷하다.



이승만 대통령 한국보육원 방문 (사진_국가기록원)

연필 대신에 총을 잡은 학도병과 학도돌격대

참전 학도병 결성

1950년 7월 30일 제주읍내 중학교 별로 학생총결기대회를 열어, 구국전선에 참전할 것을 결의함
제주농업중, 대정중, 오현중, 서귀중, 한림중 등 제주학생들은 군사훈련 없이 바로 육군과 해병대 전선으로 투입되었으며, 제주출신 재일학도의용군 25명도 참가함
학도돌격대는 1950년 7월 30일 제주읍내에 거주하는 제주농업중학교, 오현중학교, 제주중학교, 제주교원

양성소 등의 학생 145명이 오현중학교에서 모여 편성됨
(돌격대장 김호산, 지휘 고남화)

1950년 8월 16일 제주농업중학교에서 학도장행회와 환송식을 열고, 다음날 8월 17일 태극기와 가족들이 만들어 준 천인침을 배에 두르고 제주읍내를 시가행진함.
돌격대는 광주주둔 보병 제5사단에 합류하기로 하였으나 전세가 여의치 않아서, 대부분 해병 4기로 입대함



김일선 여자 해병대가 소지했던 태극기
(67x74.7cm/1950/ 소장 제주교육박물관)



김성원 해병대가 소지했던 천인침
(90x18cm/1950)

천인침(千人針).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의 무사 안녕을 위하여 하얀 천에 붉은 실로 여러 사람이 한 땀씩 바느질한 유품으로, 적의 총탄을 피해가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보통 '무운장구(武運長久)', '필승(必勝)', '화랑도 정신'과 같은 글자를 넣었다.



6·25전쟁제주출신추념비

1994년 제주고등학교 교정 양지원에 6.25전쟁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한 132명 제주출신 학도병 가운데 전사한 38인의 영혼을 추념하기 위해 세워졌다(오른쪽은 추념시).



대정중학교 6·25참전 소년병 추모 조형물

2015년 9월 대정중학교 내에 소년병을 기리는 '침묵의 뜰'이라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였다 (오른쪽은 추념시).

조국을 택한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내 재일한국학생동맹, 조선 건국촉진 청년동맹, 대한민국거류민단 등이 조직적으로 결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642명이 선발되었음. 권역별로 보면, 도쿄 139명, 오사카 61명, 후쿠오카 78명, 기타 지방 364명이었으며, 제주 출신은 25명이었고, 여성은 제외되었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 원산상륙작전, 흥남철수작전, 백마고지전투, 김화지구전투 등에 참전함. 참전자 642명 중 52위는 조국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으며, 83명은 실종되었다. 유엔사령부는 1951년 4월 15일부터 이들을 일본으로 귀환시키기 시작하여 모두 265명이 되돌아갔다. 나머지 242명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정부가 이들의 귀환을 거부함에 따라 국내에서 머물게 되는 불운이 닥침.

1979년 10월 2일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재일동포의 성금으로 인천광역시 수봉공원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를 건립하여,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음.

제주 출신 재일학도의용군의 명단과 출신지 또는 연고지
조기남(서귀포시 월평동), 이영종(일본 동경), 양옥룡(화순리), 강공래(하모리), 김규순(경기도 광명시), 김재해(대정읍), 송두경(대구광역시), 이창만(도두리), 조지수(서귀포시 월평동), 최덕순(전북 익산시), 이흥기(회천동), 오병윤(남원리), 강원아(일도동), 김인무(태흥리), 박군철(김녕리), 신상봉(제주도), 강록춘(판포리), 강문휴(안성리), 양흥규(이도동), 홍준언(고내리), 홍정궁(이도동), 김궁형(내도동), 김상수(법환동), 김자윤(표선면 세화리), 김연호(화북동)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인천광역시 수봉공원



한국전쟁 출진 전의 학도의용군
동지들과 함께(1950)
(사진_양옥룡)



재일학도의용군 출진 증명서
(6.0x9.7cm), 이창만
(소장_전쟁기념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 조약. 1952년 4월 28일부터 발효되어 일본 정부는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은 1952년 4월 28일 이후부터는 일본 정부에서 허가 받지 않고 임의 출국한 자로 분류하여 입국 자체를 불허하게 된다.

전몰학도의용병에게

월탄 박종화 (1971)

붉은 마귀들.
평화로운 이 강산을 침범했을 때
적의 진흙 발길은
골골마다 짓밟아 났을 때
씩씩하고 어린 학도의용대
정기의 불타는 학도의용대
부르지도 않았건만 모여 들었네
저야 할 의무도 없건만 뭉쳐
모여 들었네
모두 다 스물 안팎
명모(明眸) 호치(皓齒)의 이 나라의 준충(俊聰)들
백수로 적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네
장렬하게 피를 뿜어 싸워 죽었네
군인 아닌 학도의 몸으로
옥이 되어 부서져 버렸네
찬란하다, 이 나라 소년의 의기
서릿빛 무지개 되어
이 땅 청산마다 길이 꽃혔네
아아 그대들 아내도 없고, 이들도 없네
그대들의 정기는
우리 겨레 모두가 이어 받들리
삼천만 온 겨레가
가슴속에 고이 이어 받들리
그대들, 평안히 눈을 감으라
그대들의 의기는
우리 겨레의 이름과 함께
천추만대에 태양 같이 빛나리라



한국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제주도에서 해병대 입대를
자원한 학도병들_1950.8.31 제주북초등학교
(사진_해군역사기록관리단)



백만학도총궐기대회 (사진_국가기록원)



여자 의용군 행진 (사진_국가기록원)



여자 의용군 훈련 (사진_국가기록원)

8 월 의 사 나 이

임 종 린

시인, 명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해양문화협회 고문, 제20대 해병사령관

1. 그 때 그 시절

6·25 자유수호 전쟁은

잊혀진 역사의 단면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온 잊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이다.

기슴에 묻고 간, 지울 수 없는

통한(痛恨)과 회한(悔恨)의 아픔이기에

여기,

해병대 전투의 주역들이

칠순(七旬)의 백발이 되어도 잊지 못하고

살아 남아 있다는 죄책감에

눈시울 적시며 모여들었다.

그들은

제주도 학도병이 주축이 되었던

해병대 3, 4기생들로

그때 그 시절을 되돌아본다.

이들의 흔적은

1949년 12월 28일, 해병대 사령부가

제주도에 주둔한 이듬해 8월, 자원입대

삼시간에 6·25의 불 속으로 뛰어들어

조국의 산야(山野)를 누비면서 승리를 쟁취,

해병대 신화의 전투사를 엮어 갔다.



조국을 위하여 (사진_고병남)

2. 그 날의 山野

생명을 잉태하고

영혼마저 적시는

어머니 같은 6월,

그날의 여름은

조국의 산야가 불타고

황토 빗길로 벗겨진 능선에는

삭일 수 없는 좌절과 분노의 감정만이

나뒹굴었다.

1950년 8월 17일.

해군 함정의 지원하에 실시된

전광석화(電光石火)와도 같은

통영 상륙작전의 묘수(妙手)에

외신 종군기자들은

귀신 잡는 해병대란 찬사를 보내와

세계의 이목을 받았다.



제주 출신 해병대 (사진_김진탁)

3. 인천상륙 - 수도탈환 작전

1950년 9월 15일 18시 30분,
인천 상륙작전의 용마(龍馬)로
적색해안에 상륙한 한국 해병대
부슬비 내리는 해안 교두보에서
전승의 기세를 올리던 밤하늘에는
전설 같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었다.
시가지 소탕작전을 거쳐 서울로 진격,
연희고지(△104)에 전승의 기를 꽂고
중앙청에 감격의 태극기를 휘날려
적 치하 90일 만에 수도탈환의 기쁨을 가졌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어찌 잊을 수 있으리오!

4. 반격, 그리고 철수

패주하는 적의 퇴로 차단을 위해
함정으로 이동,
1950년 10월 27일
명사십리에 상륙했던 한국 해병대는
고성, 간성을 거쳐
원산, 함흥, 양덕으로 전진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0년 12월 2일 꼭두새벽
백설이 덮인 준령을 타고 감행했던
필사의 설한지 철수작전 ...
그날의 일들이 기적 같다고
감회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
그러나
세월은 어느새
당신의 모든 걸 빼앗고
남겨진 건 주름과 새하얀 서리입니다.
세월의 벅찬 젊음을 빼앗아갔지만
조국과 해병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감격적인 상륙의 첫 발을 내딛는 해병
(사진_국가기록원)

5. 1·4후퇴, 다시 北으로

진해에 집결

휴식과 재정비를 마치고

영덕, 안동, 청송, 영주에서

적 패잔병 소탕작전을 전개하며

다시 북으로 ...

1951년 6월 4일

난공불락(難攻不落)을 호언장담하던

도솔산(△1,148) 24개의 공격목표들 ...

수류탄과 백천의 포탄이 날아들던

마(魔)의 아성(牙城)들

사신(死神)들이 통곡하는 아비규환의 생지옥

17일 간의 사투 끝에 그 목표를 점령

서로 부둥켜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던 격전지

여기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사휘호(下賜揮毫)

무적해병(無敵海兵)의 발원지(發源地)

도솔산이다.

아 도솔산 높은 봉

해병대가 쌓아 올린 승리의 산

오늘도 젊은 피 불길을 뿜고 있다.



1953년 7월 휴전 직후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주 출신
양재용 소위에게 건네준 사진 속에 터키 장병들
(사진_양재용)



김일성 고지
(사진_김진탁)



임진강에서
(사진_김진탁)

다시 한달 후, 이어진

김일성고지(△924)와

모택동고지(△1,026) 공략(攻略)

1951년 9월 2일 12시 30분

우렁찬 돌격의 혈함(血喊) 속에

피 맺힌 까마귀 울음소리

울부짖고 있었으니

어찌 이승의 풍경화였으리오.

이름하여, 김일성고지 작전 승전고가 올랐다.

그 이듬해, 1952년 3월 중순

치열했던 산악지대 격전지를 떠나

정마(征馬)의 말머리를 서부로 돌렸으니

사천강과 장단지구 전투였다.

번번이 감행된 중공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수도 서울의 관문을 자랑스럽게 지켜

휴전에 이르도록 한 그 후예, 그 공훈

청사에 길이 빛나리라.

6. 이들의 恨

두려운 것은,
6·25 전쟁의 상처를 모르고
망각해 가고 있는 이 땅의 후세들
만에 하나,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된다면
우리 국토는 초토화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후진국으로 변할 것이다.
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풍전등화에서 구해 낸 해병대 3, 4기생들의
애절하게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다시는 우리에게, 다시는 이 땅에
동족상잔(同族相殘)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 그대는 조국 수호의 불사신(不死身)
대한민국 해병대 3, 4기생!
영광된 오늘의 해병대가 있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 쏟으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해병대를 위해
별빛처럼 빛나는 전공(戰功)을 세운
먼저 가신 전우들의 침묵 앞에
고개 숙여 명복을 빈다.



도솔산 제9목표에서 전사한 전우를 위해
나무에 충령비를 쓰고 있는 해병용사들
(사진_해군역사기록관리단)



중앙청으로 진격하는 한국 해병대(1950.9.28)
(사진_해군역사기록관리단)

무공훈장을 받은 제주 출신 참전 용사들

대한민국의 훈장은 12종류이며,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됨. 무공훈장은 태극무공훈장(太極武功勳章), 을지무공훈장(乙支武功勳章), 충무무공훈장(忠武武功勳章), 화랑무공훈장(花郎武功勳章), 인헌무공훈장(仁憲武功勳章)의 5등급으로 구분됨.

한편, 미국 은성훈장(銀星勳章)과 동성훈장(銅星勳章)은 6.25전쟁 당시 전투유공자에게 미국 정부에서 수여한 훈장으로, 제주 출신으로는 강승우, 강대현, 김치현, 양동익, 지창하 등이 받음.



송서규 대령상(제주시 충훈묘지 입구). 1950년 6월 서귀농업중학교 4학년 재학시에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1951년 6월 육군보병학교 갑종간부 제7기생으로 입교하여 그 해 12월에 육군 소위로 임관함. 그 후 1966년 9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1967년 11월 6일에 베트남 닌다 마을에서 작전 중 전사함



태극무공훈장
송서규



을지무공훈장
양동익



충무무공훈장
한성택



화랑무공훈장
부창욱



미국 은성훈장
강승우



미국 동성훈장
양동익

태극기를 몸에 품다. 살아서 돌아와다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가 소지했던 태극기
(84.5x73.0cm) / 1950
(소장_민속자연사박물관)



장부현 여자 해병대가 소지했던 태극기
(87x77cm) / 1950
(소장_해병대사령부)



고남화 대령이 소지했던 태극기
(78.5x49.5cm) / 1950
(소장_제주교육박물관)



한국전쟁 당시 김석규(해병 4기, 서귀포시 호근동 출신)군을 위하여 제작한 군대 입영 기념 현수막
(소장_국립민속박물관)

태극기를 휘두르고 전장으로 나간 학도병



입대 직전의 양동익



입대 직전의 양동익 가족



입대 직전
(왼쪽부터 김동학, 김치현, 이태언)



입대 직전의 이규탁 가족

장한 어머니 이재숙 여사

- 아들 삼형제 그리고 며느리(양덕규 해병 4기)까지 전장에 보냄 -



이재숙 여사



휴가 중에 가족들과 함께



고병남(해병 4기)



고계남(육군, 고병남의 동생)



고병남의 천인침(82.0x24.0cm) / 1950



고중남(해병 3기, 고병남의 형)



임진강에서(왼쪽·형 고중남, 오른쪽·고병남)

신화를 남긴 해병대 3·4기 전우회

해병대3·4기전우회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제주출신 해병 3·4기들로 구성된 단체로, 1997년 9월 28일에 발의하여 1998년 2월 20일에 창립되었다(초대회장 강창수, 현재 김형근). 3기생은 8월 16일에, 4기생은 9월 1일(여자 해병대 126명)에 모두 3,000여 명이 해병대에 입대하여,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 백마고지, 도솔산 전투, 김일성 고지 전투 등에 참전한다. 참전하는 전투마다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무적해병’, ‘귀신 잡는 해병’의

칭호를 받으며 명성을 날린다.

전쟁 후, 이들은 해병훈탑 건립(1960년), ‘제주 해병의 날’ 지정(2001년), 참전실록 발간(2002년), 「다시 보는 그 날의 영광」 특별전 후원(2004년), 인천 상륙·서울 수복 작전의 주역 발간(2010) 등 전쟁 속에서 생사 고락을 함께 한 전우들을 위한 추모 행사와 지역 사회에 숭선수범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시 보는 그 날의 영광」 특별전 참석 (2004년, 민속자연사박물관)



「다시 보는 그 날의 영광」
특별전 도록



인천 상륙·서울 수복
작전의 주역



참전실록

해병혼탑과 명예해병 1호 장시영

한국 해병대 창설은 경남 진해였지만, 한국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주역은 1950년 8월에 자원입대한 3,000여 명의 제주 출신 해병 3·4기생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교사, 학도병 신분이었으며, 입대 후 바로 인천상륙작전, 백마고지, 도솔산 전투 등에 참전한다. 전쟁 후에,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해병대의 애국 충정을 기리고자 해병혼탑을 세우게 된다.

당초 그들이 상륙함에 승선, 출정한 것을 기념해 산지향에 설치하려던 것을 해병대의 상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왕래가 많은 동문로터리를 최종 부지로 선정하게 된다.

면적 400㎡(119평)에 기단(1.83m)을 포함해 전체 탑 높이는 10m에 이른다. 탑은 삼다·삼무를 상징하며 삼각(三角)의 구조물로 창공을 향해 쏘아 올라가는 모습을 띄고 있다. 글이 새겨진 탑의 주 방향을 북쪽으로 한 것은 북진 통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에서 1950년 9월 1일은 해병 3·4기생들이 인천상륙

작전 참가를 위해 제주항에서 출정한 날로, 2001년부터 매년 9월 1일을 '제주 해병대의 날'로 지정하여 추모식을 개최하고 있다.

해병혼탑 건립은 제주 출신 장시영(1922년생, 애월 출신, 삼남석유 설립) 회장의 공로가 컸다. 한국전쟁 중에 그는 부산에서 개인의원을 영입하다가 1950년 7월에 해군병원으로 옮긴 후, 1951년 2월에 해군사관 학교 제13차 특교대 교육 과정을 마치고 해병 제1연대 군의관으로 근무한다. 휴전 후에는 해병포병대대 의무 대장으로 있다가 1955년 5월 제주도에 있는 제3해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 해 11월 28일에 예편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해병 3·4기생들과의 인연으로 그는 해병 혼탑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아 성금 50만원, 해병대사령부 지원 50만원, 본인이 쾌척한 150만원으로 해병혼탑을 건립하였다. 1990년 4월 15일 해병대 사령관은 장시영 회장을 명예해병 제1호로 위촉한다.

탑의 휘호는 원래 이승만 대통령 으로부터 '해병혼(海兵魂)'을 받았으나 1960년 3·15부정선거에 따른 4·19혁명이 일어나자 서예가 김광추 선생의 서체로 바꾸게 됐다. 그런데 김씨는 해병혼의 글자 중 '혼(魂)'의 우변인 '귀신 귀(鬼)' 위에 붙은 꼭지(乚)를 떼지 않으면 '죽은 혼'이 된다고 해서 그의 이론에 따라 귀신 귀자의 뺄림별(부수)을 뺀 한자를 쓰게 되었다.



해병혼탑
(1960년 4월 15일 건립)

전우애로 뭉친 50동지회

1950년 육군 제5훈련소 출신의 장교들

제주도에 육군제5훈련소가 창설된 것은 1950년 7월 16일이며(소장 김병철 대령), 본부는 제주항 동부두에 있는 주정공장, 제1교육대는 모슬포, 제2교육대는 한림, 제3교육대는 주정공장, 제5교육대는 제주농업학교에 설치함
당시 입소한 장정은 대부분 제주 출신 신분으로 10,000여 명에 이르며, 신병 교육훈련을 했던 교관들도 오늘날 50동지회 소속 제주 출신 장교들이었음.
제5훈련소 출신들은 그 해 8월 27일에 경북 영천에서

창설된 보병 제11사단으로 투입되어 1953년 7월 휴전될 때까지 화랑사단의 명예를 길이 남김.

故 고태문 대위를 비롯하여 이들의 활약상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터진 4·3으로 제주도 사람들을 빨갱이처럼 경계했던 당시의 인식을 깔끔하게 씻어주는 계기가 되었음.
전쟁 후, 이들은 1960년 10월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50동지회를 탄생시켰으며, 제주에서는 1966년 6월에 창립하였다(초대 회장 김종업).



50동지회 회원들 (사진_홍지행-뒷줄 왼쪽 두 번째)



50동지회 회원들_뒷줄 왼쪽부터 강상언, 고남화, 강치삼, 이동선, 오희철, OOO, 오재선, 홍지행, 문윤석
(사진_고남화)



50동지회가 제주시 충혼탑에 기증한 분향로(1983. 6. 6)



강용택 추억록 (26x20cm)
1950~1952년



공생 (共生, 72x108cm) / 지본 수묵채색
강용택 / 해병 4기 (소장_해병대3·4기전우회)

인천상륙작전(1950. 9. 15)을 시작으로 총 반격 작전이 전개되었다. 전방(前方) 부대의 해병들은 계급장도 착용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때에 이발도 못했으니 장발(長髮) 상태로 북진(北進)은 계속 되었다. 1개 연대뿐인 해병부대 중 8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도솔산 전투는 치열했다. 심야(深夜)에 공방전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쌍방 간에 백병전(白兵戰)이 벌어져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동이트고 시야(視野)가 밝아지자 미군 전투기의 엄호사격을 받고 있으나, 사상자가 넘쳐 후송용 미군 헬기의 지원을 못 받은 두 병사는 산골짜기(강원도 양구)에서 서로 도우며 힘든 보행(步行)으로 공생의 길을 찾고 있다. 때는 1951년 6월 초순이며 이른 새벽이다.

제주특별 자치도 충혼묘지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시 충혼묘지를 비롯해 7개 읍면 지역마다 충혼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1950년 애월(수산리 산 1-1번지)과 우도(천진리 1519번지 외 4필지), 1953년 제주시(건입동 553번지, 1985년 노형동 산 19-2번지로 이설), 1954년 한림(협재리 2487-1번지 외 1), 1958년 한경(용수리 3043번지 외 2), 1962년 조천(신흥리 375번지)과 추자(영흥리 95-1번지), 1971년 구좌(세화리 1085-1번지)에 각각 충혼묘지가 세워졌다.

제주국립묘지는 현재 노형동의 충혼묘지를 국비 500여억 원을 투입, 44만여㎡에 봉안묘와 봉안당을 각각 5,000기씩 조성할 계획이며, 2021년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국립묘지 조성 후에는 호국박물관, 6·25전쟁과 베트남전, 독립운동과 관련된 콘텐츠 및 시설을 갖추 예정이다.



제주시 충혼묘지



서귀포시 충혼묘지



제주국립묘지 조감도 (자료_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시 충혼탑에 새긴 추모시

충혼묘지

양중해

노을에 젖어
보랏빛 고요 속에 저무는 묘지
나라를 지킨 호반들이
거룩한 노여움을 침묵에 묻고
조용히 잠들어 있다.
어느 치열한 싸움터마다
요란하게 피어 나던 젊은 주검들이
고향이라 찾아와
나란히 누워 있구나
한해 살이 풀도 자그만 꽃을 피워
제 마음을 알리고
새들의 떼도
소리를 죽여
나지막이 날거늘.

사람들이 어찌 마음 없으랴.
오늘의 풍경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를...
여기 한적한 들 한복판에
이름 하나씩 받드는 빗돌들은
만겹을 굽어 비껴 충절의 의지이거니.
청춘들은 잠들고
의열은 불길로 사모쳐
저어기
하늘
땅
넓은
공백이
통곡보다 처절스리 노을지었음이어!



김두성(해병 2기, 한동리 출신)의 묘비/ 구좌읍 충혼묘지



남원읍 충혼묘지

6·25참전 기념탑

2012년

10월 24일 건립

제주시 신산공원

6·25참전기념탑은 한국전쟁 62주년을 기념해 참전용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탑의 높이는 6m25cm로 6·25전쟁을 상징하며, 밑 기단에서 탑 지구본 높이는 9m28cm로, 9·28 수도 서울 수복을 상징한다.

탑에는 제주출신 호국영웅 고태문 대위, 강승우 중위, 김문성 중위, 한규택 하사의 흉상과 그 공적이 자세히 기록돼 있으며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를 상징하는 4군상, 참전용사 8,200여 명의 명단, 전투상황과 피난민 행렬 등을 조각한 부조 등이 표현되어 있으며, 탑 좌우에는 유엔 참가국 16개 국가의 국기 게양대가 세워져 있다.



6·25참전기념탑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전역에 걸쳐 인민군 20여 만 명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쪽을 향해 포격으로 불법 남침을 자행하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잔혹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토가 온통 잿더미로 화하고,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온 국민은 도탄에 빠졌다.

이에 제주의 젊은 청년, 학도 10,000여 명이 자원하여 최전선으로 달려 나아가 낙동강 전선 사수, 인천상륙

작전, 서울 수복, 백마고지, 도솔산, 한석산... 수많은 격전지를 누비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용맹을 떨쳤다.

- 중략 -

우리는 전쟁을 겪고서 값진 교훈을 얻었다.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 속에서 쟁취해야 하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숙연히 역사 앞에 선다.

- 기념탑 건립 취지문에서 발췌

6·25참전기념탑 추모시, 2012. 10. 24

청사에 길이 빛나리

東甫 김 길 웅

한반도가 피로 얼룩졌던 6·25전쟁,
그 때, 제주의 청년 학도들 나라의 부름 받아
이 섬의 바람으로 내달렸나니
무명지 깨물어 혈서 쓰고 태극기 휘두르며
육 해 공 해병대
신작로 저 편 뽕안 먼지 속으로 모습 감추더니
끝내 돌아오지 못한 그대들이여!
아 총탄에 맞아 숨지며 외친 외마디
“반드시 고지를 점령하라”
제주의 사나이들 기어이
낙동강을 사수하고 인천상륙작전을 결행했으며
서울을 수복한 후, 백마고지를 탈환했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수류탄을 뽑아 적의 포화 속으로 몸 내던져
전선 길은 골짜기 풀잎의 이슬로 맺혔네
한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그대들
참으로 장렬했도다
주검이 산을 이루고 피가 강물 되어 흘렀거니
이제, 그대들 무공으로 이 산하엔
넘실대는 바다, 푸른 하늘, 우뚝한 산이네
세계의 중심에 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10,000여 참전용사의 거룩한 넋 앞에
오늘, 고개 숙여 두 주먹 불끈 쥐었느니
그대들의 무훈, 청사에 길이 빛나리.



전장에서 성탄절과 휴식을 즐기는 용사들



제1대대 제3소대 대원들(1950. 12.25/문두길)



서부전선에서 성탄절을 맞은 강흥기 (제일 왼쪽)



1952년 성탄절을 맞은 강봉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1952년 제5해군병원에서
(왼쪽 임희경, 오른쪽 부창옥)



1952년 6월 육군 제1훈련소 조교 생활
(왼쪽 양재용)

나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



강상진



김태원



강창수



장연중



양재용



강홍기



윤석병



신형수



문두길



김진탁



강성룡

잊지 못할 전우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가운데 강봉진)



1951년 봄. 귀신잡는 해병의 막강한 화력부대인 105mm 포병대 창설의 주역들인 1중대 해병 4기생들
(왼쪽부터 이문백, 고명덕, 부태삼, 강상홍)



오른쪽 고병남



제주해군경비부 앞에서 동료와 함께
(오른쪽 강봉진)



왼쪽 윤석병



진해해군병원에서(위줄 맨 오른쪽 강홍기)



제주해병막사에서 1963년 (사진_윤석병)

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전우들



육군 방위훈련학교 제4기생 행군 훈련_ 1950. 3. 25 (사진_김두원)



해병경리학교 1기생 하사관 수업기념_ 1951. 9. 29 (사진_윤석병)



해병하사관학교 하사관
고등반 제4기 수업 기념_
1959. 5. 15
(사진_윤석병)



제3기 고급하사관
교육 수료_1961. 6. 10
(사진_윤석병)

동기들의 무사안녕을 빌며



해병신병 4기생
입대 12주년 기념
(사진_윤석병)



해병 4기생 일동.
입대 2주년을 맞이한
동기생의 추억
(사진_고병남)



입대 3주년을 맞은 해병 4기생 (사진_양동익)



입대 5주년을 맞은 해병 4기생 / 독섬에서 (사진_강성룡)

제주 해병의 상징, 김치현 장군의 유품들

김치현 장군은 1931년 2월 5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태어났으며, 1950년 해병4기로 입대하여 한국전쟁과 월남전까지 참전함.

귀국 후, 준장으로 진급하여 해병 제1상륙사단 부사단장 겸 제2훈련단장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동성무공훈장과 보국훈장(삼일장)을 받음.



훈장 액자(58x56cm)



무공훈장증 (51x37cm)
1969. 4. 15



전투복

위 쪽_상의 45x59x84cm, 하의 46.5x105cm
아래쪽_상의 47x53x67cm, 하의 48x109.4cm



지휘봉(길이 52cm)



장군검(길이 86cm)



요대(107x4cm)

유서를 안고 전장에 나선 양재용 중위의 유품들

양재용 중위는 1932년 2월 8일 제주시 아라동에서 태어났다. 1950년 서울의 체신고등학교 합격을 포기하고, 제주도에 있는 육군 제5훈련소를 거쳐 동부전선 등에서 전투에 나감.

군 복무 중에 고등학교 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1953년 2월 갑종간부사관후보생 제49기로 입교하여 소위로 임관함, 이후 1955년 9월 육군 중위로 진급하고, 1958년 3월에 전역함.



임관사령장(17x23.2cm) 1953. 7. 18



전역사령장(24.4x18.3cm)
1958. 3. 1



육군보병학교 졸업증서(27.0x21.0cm)
1953. 7. 15



양재용님이 남긴 유서_ 임관받고 1953년 7월 17일 수도
사단으로 떠나면서 육군보병학교 졸업증서 뒷면에 썼다.



양재용 자서전
한국전쟁 참전 실화를
비롯하여 인생사를
노트에 메모,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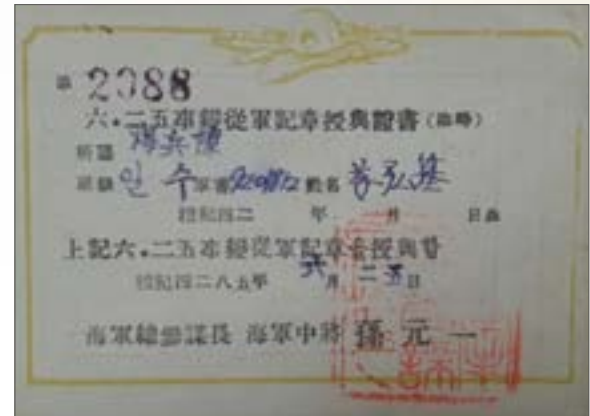


양재용 자서전 속
남긴 기록

무공훈증 등 각종 증명서



대통령수장수여증(9.2x6.2cm) 1952. 11. 25 / 강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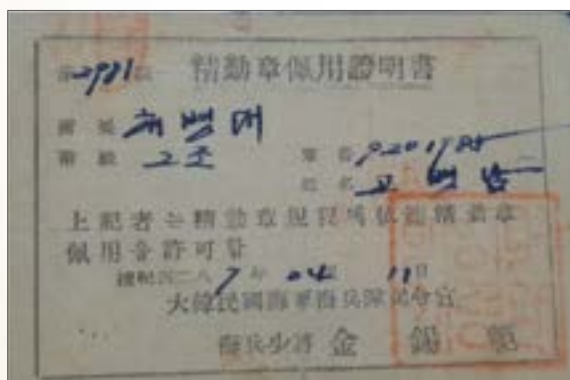
6.25사변종군기장수여증(9.2x6.5cm) 1952.6. 25 / 강흥기



무공훈장수여증(9.0x6.0cm) 1952. 12. 22 / 고병남



근무소집응소증명서(10.0x7.4cm) 1959. 4. 24 / 고병남



정근장패용증명서(9.0x6.1cm) 1954. 4. 11 / 고병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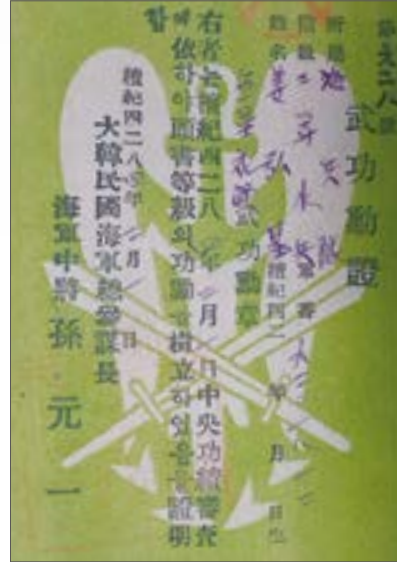


해군전역증명서(9.2x6.0cm) 1956. 7. 15 / 고병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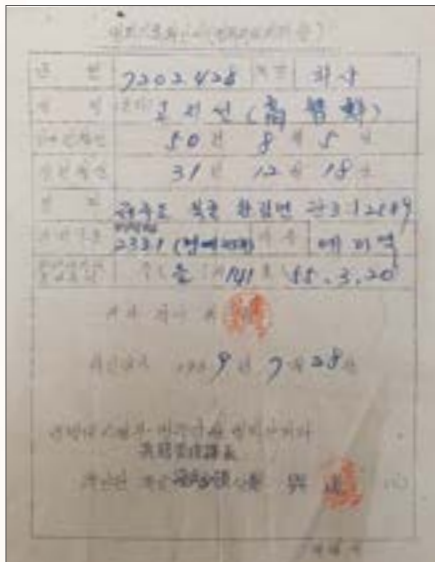
무공훈증 등 각종 증명서



상이기장수여증서
(6.0x9.3cm)
1951. 10. 1
/ 우봉홍



무성화랑무공훈증
(6.3x9.3cm)
1951. 2. 1
/ 강흥기



병적기록확인서
(14.3x19.8cm)
1969. 7. 28
/ 고지선



금성화랑무공훈증
(6.3x8.7cm)
1952. 12. 22
/ 부창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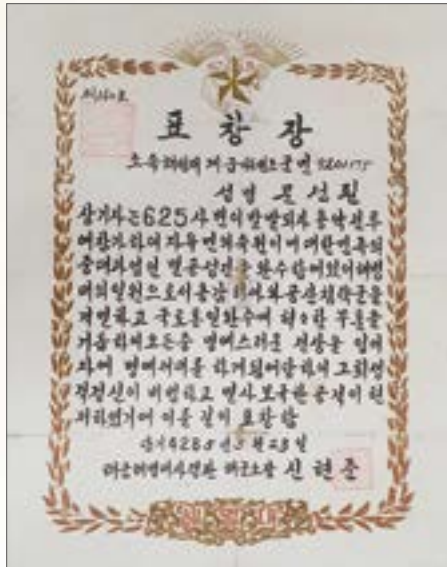


전역증서
(8.8x6.0cm)
1955. 4. 14
/ 고지선



상이기장수여증서
(8.8x6.5cm)
1954. 1. 1
/ 양재용

표창장, 수료증, 전역증서, 훈장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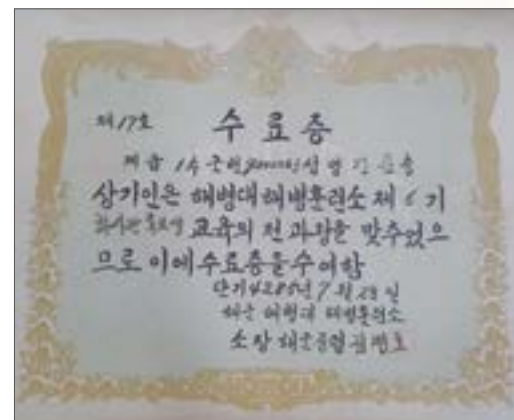
표창장(39.1x45.0cm) 1952. 5. 23 / 문성필



표창장(32.1x47.0cm) 1958. 4. 15 / 윤석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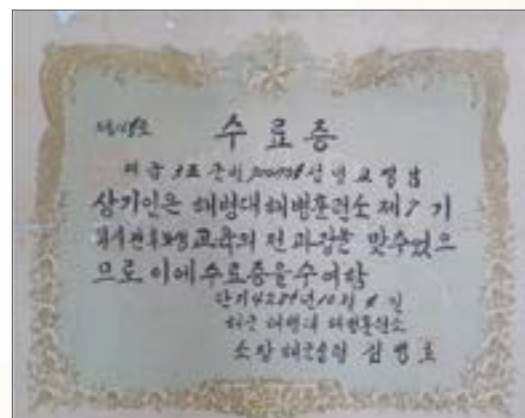
표창장(39.8x32.4cm) 1951. 10. 25 / 우봉홍



수료증(41.9x33.3cm) 1952. 7. 28 / 진문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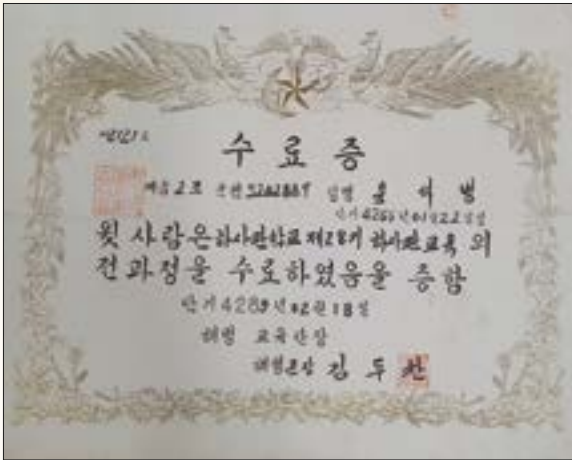


수료증(44.1x33.0cm) 1955. 7. 23 / 성신순



수료증(41.3x33.1cm) 1952. 10. 4 / 고병남

표창장, 수료증, 전역증서, 훈장증



수료증(24.8x33.0cm) 1956. 2. 18 / 유석병



해군전역증서(38.0x30.8cm) 1956. 7. 5 / 성신순



해군전역증서(45.0x32.2cm) 1955. 4. 28 / 문성필



무공훈장증 (33.0x25.7cm) 1952.12. 22 / 현동호



표창장(37.8x26.0cm) 1951. 7. 10 / 김두원



무공훈장증(51.0x38.0cm) 1967. 7. 26 / 고남화

명찰, 계급장, 마크, 군번줄



모표(6.8x6.6cm)
1950 / 양재용



해병대 마크(6.0x5.5cm)
1949 / 고병남



호루라기(15.0x8.0cm)
1950 / 윤석병



해병대 마크(6.0x5.5cm)
1949 / 고병남



군번줄(5.1x2.8cm)
1950 / 윤석병



군번줄(4.5x3.0cm)
1950 / 김두원

명찰, 계급장, 마크, 군번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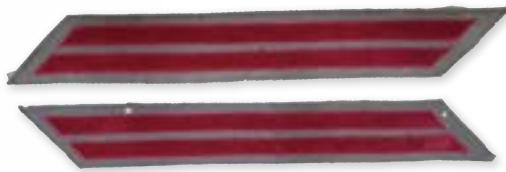
명찰(8.0x3.0cm)
1950/김성원



명찰 (7.0x3.4cm)
1950/최형권



명찰 (7.0x3.4cm)
1950/양재용



계급장(15.0x8.0cm)
1950 / 최형권



계급장(15.0x8.0cm)
1950 / 최형권



계급장(3.0x3.0cm)
1950 / 고병남



계급장(1.5x4.0cm)
1950년대 / 양재용



보병 마크(4.2x1.8cm)
1953 / 양재용



단추(대 3.0cm, 소 2.5cm)
1953 / 양재용

전우들과 인연을 맺은 보급품



가방(34.0x15.0x 24.1cm)
1950 / 오문찬



가방(31.0x30.0x92.10cm)
1950 / 김동학



가방
(28.6x30.5x93.0cm)
1950 / 신기수



수저(19.0x4.7cm)
1950 / 김동학



반합(13.5x10.0cm)
1950 / 김동학



단검(29.5x2.2cm)과 케이스(31.0x4.0cm)
1950 / 문두길



군인수첩(8.5x12.6cm)
1950 / 윤석병



수통벨트(109.0x5.5cm)
1950 / 윤병찬



수통(19.0x12.7cm)
1950 / 윤병찬

참전 용사의 담요, 수건, 옷, 양말, 장갑



담요(210.3x80.1cm)
1950 / 김동학



담요(208.0x170.0cm)
1950 / 강흥기



수건(52.0x93.5cm)
1950 / 윤석병



상의(46.3x54.5x73.0cm)
1950 / 윤석병



상의(47.5x55.0x69.0cm)
1950 / 윤석병



상의(48.0x61.5x72.5cm)
1950 / 윤석병



방한복 상의(50.0x65.0cm)
1950 / 김동학



방한복 하의(30.0x44.0cm)
1950 / 윤석병



정복 하의(26.4x42.0cm)
1950 / 윤석병



양말(24.5x30.5cm)
1950 / 윤석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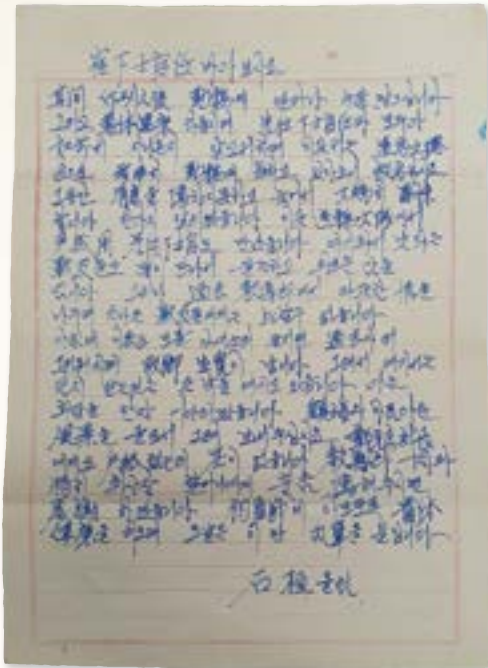


양말(28.5x32.3cm)
1950 / 윤석병



장갑(29.0x8.3cm)
1950 / 윤석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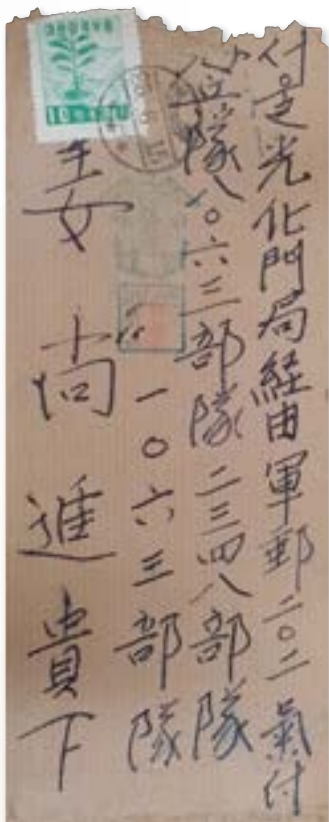
군사우편이 전하는 소식



안부편지 (19.1x26.5cm)
1956 / 최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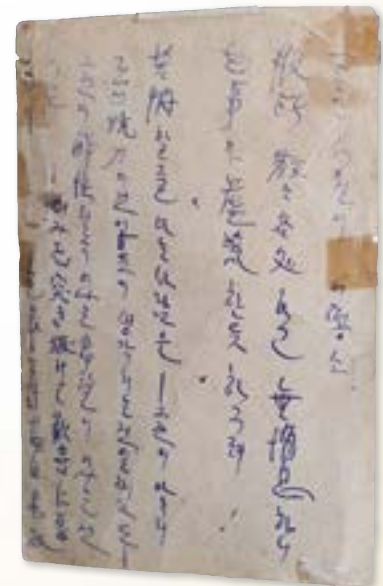
새해 엽서 (9.0x14.0cm)
1956 / 최형권



편지봉투 (8.2x19.8cm)
1953 / 강상진



안부 엽서 (9.0x14.0cm)
1952 / 문두길



주요 참고문헌

강용삼·이경수. 1984. 대하실록 제주백년. 태광문화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여군참전사. 국군인쇄창.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08. 무훈 20년사. 대영인쇄사

대한민국해병대3·4기전우회. 2010. 인천 상륙 서울 수복 작전의 주역. 디딤돌.

대한민국해병대3·4기전우회. 2002. 참전실록.

정수현. 2006.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 남제주문화원. 일신옵셋인쇄사.

정수현. 2008. 한라의 젊은 영웅들.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도서출판 열림문화.

정수현. 2009~2013. 6·25전쟁과 제주영웅들 1~5.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도서출판 열림문화.

정수현. 2014~2017. 6·25전쟁과 제주용사들 6~9.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도서출판 열림문화.

정수현. 2018. 6·25전쟁 참전실화 1, 2.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도서출판 각.

제주고등학교총동창회. 2011. 제주고 백년사. 지에스테크

제주도. 1997. 제주실록(1945~1996). 나우인쇄출판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4. 다시 보는 그 날의 영광(특별전 도록).

제주방어사령부. 1997. 제주와 해병대. 선경기획.

제주특별자치도. 2010.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1900~2006년). 도서출판 각.

제주특별자치도. 2017. 제7대 제주도지사 길성운 기증 기록물.

협조기관, 단체, 개인

해군역사기록관리단, 해병대사령부, 국가기록원, 전쟁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해병대제9여단,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해병대3·4기전우회,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참전 용사들의 유족 (강응봉, 김두만, 김철승, 송재용, 양진혁) 등.

증언 및 자문 (가나다순)

강복구, 강창수, 고남화, 김형근, 김홍수, 박희모, 부창옥, 오동진, 이서근, 한성택, 홍지행

한국전쟁 무료영화 관람 - 영화 관람자는 무료 입장

상영일시_ 2018. 11. 12 ~ 2019. 2. 28 (매주 목요일 15시)

상영장소_ 시청각실(박물관 로비)

영화제목_ 인천상륙작전(2016), 서부전선(2015), 국제시장(2014), 고지전(2011),
포화 속으로(2010), 웰컴 투 동막골(2005), 태극기 휘날리며(2003) 등

제140회 특별전
140th Special Exhibition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중심으로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총괄 정세호
기획 부용식, 김완병
전시진행 김완병, 정미정, 백지현, 김현경, 고범석
학예지원 김태희, 고현주
기록자문 정수현
사진촬영 김완병, 김태희
영상촬영 전영선
행정지원 고매숙, 김형진, 홍덕주, 김익제, 이홍림, 오경미, 임혜원

발행일 2018. 11. 12
발행인 정세호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632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Tel. 064-710-7704. Fax 064.710.7709
디자인/인쇄 일신옵셋인쇄사

발간등록번호 79-6500450-000025-01

ISBN 978-89-97074-82-2 03090

본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 특별전 도록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저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